

#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가속화... “전남 생활권 확장”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기대 2단계 건설 시기 앞당겨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군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지역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SOC 확충으로 전남 서남권의 공동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약속한 만큼 2단계 사업 추진 또한 속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2034년 완공 예정인 최종구간의 건설 시기 또한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완도군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14년 타당성 재조사 후 광주 벽진동~강진 성전 구간을 1단계, 강진 성전~해남 남창 구간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단계인 광주~강진 구간은 총 연장 51.11km, 총 사업비 1조 781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8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로 총 연장 38.9km, 총 사업비는 1조 5965억 원이며, 2023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민생토론회에서는 광주~영암간(솔라시도 기업도시) 47km 초고속도로 건설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등 전남 서남권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약속이 눈에 띄는 자리가 되었다. 광주~영암간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호교차로(IC)를 통해 해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와도 곧바로 연결돼 전남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과 해남군은 그동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2001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1단계 구간은 2017년도에 착공, 2단계 구간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확정되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전남 서남권 발전 속원 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윤대통령이 강력하게 표명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면서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남군 명현관 군수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의지를 밝히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했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의 현안 사업인

## 지역 이모저모

### 영천시 ‘저출생과의 전쟁’ 적극 동참

함께 출산을 도내 시부 1위인 영천시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다.

그간 영천시는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돌봄·주거·출생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1차 대응회의를 열었으며, TF 추진단(단장 김진현 부시장)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주요 시책으로, 제이병원(분만산부인과) 과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역밀착형 공공주택 조성 등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영천(경북)=이대호 기자

### 경남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경상남도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사업신청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 전략품목을 최소 800㎡ 이상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당 최대 66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가는 유기 인증품목은 제곱미터(㎡) 당 250~350원, 무농약 인증품목은 제곱미터(㎡) 당 150~250원으로, 농가당 최대 23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구미시는 3월 15일 이수스페셜티케미컬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류승호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대표,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장세구 시의회 부의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구미시, 전고체 배터리 핵심사 유치 내년부터 3000억 이상 투자 계획

정밀화학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과 구미산단 내 공장신설 계약 체결

구미시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수그룹 계열사인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정밀화학 기업으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황화 리튬(Li2S)은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전해질을 구성하는 핵심 원료로 제조공법이 매우 까다로워 양

산하기 어렵고 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손을 꼽는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생산을 위해 구미산단 내에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투자 부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2025년부터 신규 고용 100명과 3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의 신규 입주로,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첨단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유희철 기자 rhc1369@

##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정화 ‘총력’

민원사항 지속 모니터링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번 노선개편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 중북노선 개선, 골목노선 직선화, 영산로 집중노선의 백년대로 분산화 등 노선의 효율화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14개 노선에서 8개로 간소화했고, 이를 통해 적자 노선을 줄이는 것이 급변 개편의 핵심이다.

목포시는 이번 노선개편과 관련해 지난 3주 동안 시민소통신문고와 전담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206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78건은 시범운영 기간에 접수되었고, 3주째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788건으로 이는 시범운영 기간보다 감소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간보다 감소했다.

개학일인 지난 4일 이후 순환66번(66-1번)에 대해서는 신학기임을 감안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2대를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기존 13~15분에서 10분 내외로 조정했다.

목포와 무안을 경유하는 200번에 대해서는 무안군 손실분담금 일부 부담에 따라 당초 12대에서 7대로 감축 운행되었지만, 배차간격을 25분에서 20분으로 5분 당겨 탄력 조정했다.

시는 계속해서 시 홈페이지, 전화,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가동을 위한 선행 과제인 노선 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주시, 내년 국비 9465억 확보 목표

내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9465억원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알천홀에서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국비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글로벌 경기 위축,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상황 속에

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액 9227억원 대비 238억원 증액한 9465억원으로 잡았다. ▲신규사업 51건 ▲계속사업 109건 등 총 160개 등 국비 9465억원(총사업비 8조 3722억원)의 사업비를 건의할 예정이다.

새로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양성자가속기 기반 오픈 리노베이션 캠퍼스 조성(70억원) ▲신라문화 관광단지 조성(10억원) ▲국립 대한민국관광역사관 건립(25억원) ▲무장애 예술학교 운영(5억원) ▲미래자동차용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20억원) 등이 있다.

계속사업으로는 ▲신라왕궁(월성) 복원·정비(6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나로우주센터서 ‘고흥우주항공축제’ 열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세계 13번째이자 지구 밖 우주로 가는 대한민국 유일한 플랫폼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주탐험의 서막, 지구 밖 또 다른 행성, 새로운 우

주의 시대를 테마로 ▲국내 유일한 나로우주센터 견학 ▲우리나라 최초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KSR-Ⅲ)와 누리호 실물 기획 전시(1단~3단 로켓, 위성, 페어링, 엔진) ▲우주인 친구와 만나 달나라를 여행하는 우주여행 미디어아트 등 우주항공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이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축제도 병행 추진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 대구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대구광역시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적극 추진에 나선다

특화단지 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3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모터 성능평가인증센터 조성(10억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모터 기업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275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은 지역기업이 구동모터 소재·부품·모듈 고기능화와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내재화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모터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대학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